

백절불굴, 백전백승하는 영웅조선의 기상과 본때로 반미대결전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근대와 세기를 이어 결전한 대적의 지를 백배, 천배로 만장약하며 조국수호의 역센 보검을 버려온 공화국인민은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평화로운 새 사회건설의 회열에 넘쳐있던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들뜨은 미제의 만고죄악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격렬한 분노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이 행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정의와 평화의 교살자인 미제국주의의 침략야망과 본성을 세세년년 되새겨주는 역사의 날에 즈음하여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가 6월 25일 5월1일경기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시안의 12만여명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모여온 집회장소에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장장 70여년간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죄악만을 덧

쌓아온 미제국주의에 대한 서리받치는 증오와 보복의지가 차고넘치었다.

리일환, 박태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승국 내각 부총리, 리두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근로단체,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군중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최희태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용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지배인, 허준금 락랑구역 금대농장 경리, 김주혁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에 의하여 참혹한 전쟁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6월 25일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가실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픈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의 힘이 강하였더라면 6.25와 같은 천추의 한은 없었을것이며 조국강토가 무고한 선혈로 물젖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왜 강해야 하는가라는 역사의 이 물음에 바로 70여년전의 피맺힌 일요일이 대답을 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총대가 강해야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소중한 모든것을 지켜낼수 있다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당의 자위적국방건설 사상을 받들어 미제를 징벌할 최강의 절대병기,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 못하게 할 자위적전쟁역제력을 억척같이 틀어쥐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 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상대로 원자탄사용까지 공언하였던 미제가 오늘도 민족의 극악한 원수인 남조선역적패당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부추기며 군사적대결과 핵전쟁연

습에 광분하고있는것은 70년이 아니라 7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침략자의 본색을 날날이 드러내보인것이라고 락언하였다.

오늘의 참예한 정세는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급도,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침략전쟁도발에 환장이 된 미제는 북수의 의지로 무섭게 달아오른 이 땅의 열기가 최악의 총본산인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향해 폭풍쳐가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전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투철한 주적관, 반미계급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버리며 민간부력의 싸움준비,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국주의와의 총결산은 더는 미물수

없는 우리 세대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불굴의 대적의지로 만장약한 이 땅의 북수자들은 단호한 보복성전으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게 무자비한 징벌, 철저한 박멸을 선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년속적 미제와 남조선역적패당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끓어오르는 북수의 열기를 분출시키는 구조들과 원수격멸의 함성이 6월의 하늘가를 진감하였다.

이러 군중시위가 진행되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지금 이 시각도 반공화국압살의 개꿈을 버리지 못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를 상대로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일삼고있는 미제와 역적무리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떨치지 않고 더욱 더 힘있게 행진해나갔다.

만일 적들이 신성한 내 조국의 0.001mm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전민항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세기를 두고 싸

이고 쌓인 분노와 증오의 폭발로, 다지고 다져온 공화국의 불가항력으로 침략의 아성, 악의 근원을 무자비하게 들부서버릴 의지가 격려되어 끓어올랐다.

시위대오마다에서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는 원수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에 매진분투함으로써 전면적국가부흥의 활로를 더욱 힘있게 열어갈 혁명적열의가 세차게 분출되었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는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의 위대한 미래를 위하여, 반미대결전의 승리를 위하여 결절한 혁명신념과 역센 투지로 노도와 같이 진군하여 영웅조선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이어갈 수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전위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집회 공화국의 각 도들에서 진행



괴담을 만드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핵오염수공세는 괴담정치이다》, 《괴담괴해를 막겠다》, 《소금사제기(값이 오를것이라고 보고 필요이상 사들이는것)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목소리를 이렇게 《괴담》이라고 하는자들이 있다.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은 물론이고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는 섬나라것들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것이 과연 《괴담》이겠는가.

지금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섬나라것들의 망동은 일본내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있다.

《핵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해양에 방출한것은 국제적인 선례가 없다》, 《경제적비용만 고려해 해양에 방출하려는것은 다른 나라와 전 인류에 위협을 전가하는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고있다.

핵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은 《죽음의 대양》으로 될것이며 1차적피해는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남조선이 당

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이 섬나라것들의 반인륜적인 핵오염수방류책동을 결사반대하고 있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서울행동》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책동과 그를 비호두둔하는 저들의 망동을 단죄

배격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모독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사실과 맞지 않는 진짜 괴담을 만들어 내뿜는 장본인은 윤석열역적패당이다.

《30년동안 방사능이 축적되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신할수 있다》, 《핵오염수를 방류하면 자연의 힘으로 정화된다》, 《핵오염수를 하루 3기 먹으면 먹겠다》...

세인의 분노를 자아내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도 배

상도 하지 않고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광분하다 못해 이제는 핵오염수까지 방류하려고 미쳐달리는 섬나라것들을 두고 어제날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협력의 동반자》로 되었다고 괴담을 늘어놓은것도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괴담과 꾀변을 내뿜으며 민중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그 패거리들이야말로 남조선 각계층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 재난의 모근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동맹국회》, 《전쟁국회》

남조선에서 정치권에 대한 각계층의 환멸과 혐오감이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있는 여야당대표들의 연설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환영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야당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정권》은 집권 1년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로정권》, 압수정권, 《국민포기정권》이 되었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의 무지무능과 광란적인 검찰강제정치, 대내외정책실패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편 여당대표는 무려 50여분이나 괴담을 늘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공격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야당을 《괴담》, 《가짜뉴스》, 무분별한 선동으로 《국정》발목잡기에 매달리는 세력으로 몰아댔다.

여야당대표는것들이 이처럼 비린칭을 두들겨 서로 물고뜯자 그 아래것들도 덩달아 악청을 두들겨 상대방을 몰아댔다.

《국민의 힘》것들은 야당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내용이 잘못되었다, 현 위기는 이전 《정부》가 초래한것이라고 고아대며 항의하거나 헛기침을 하면서 방해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더불어민주당》것들 역시 여당대표는자가 연락에 나오자 《거짓말하지 말라》, 《대통령실》의 영부새, 《창피한줄 알고 퇴진하라》, 《여기가 일본국회냐》 등으로 야유하고 조소하였다.

여야당것들의 이러한 해괴한 추태가 그대로 실황중계되고 이것을 본 각계층에서는 《저런게 정치냐》, 《저런게 정치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이날 《국회》회의장 방청

석에는 《국회》전화를 왔던 120여명의 초등학교학생들이 앉아있었다고 한다. 여야당의 《국회》의원들속에서는 이들앞에서 저들이 놀아내는 꼴이 너무도 창피하여 《방청석에 초등학교생들도 있지 않나. 그들앞에서 레의도 없고 미덕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부끄러웠다》는 개란의 소리도 울려나왔다.

저들의 정략적목적 위해 민심이 요구하는 법안처리에는 뒤전에 밀어놓고 《국회》를 고성파 주먹질만 오가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전쟁국회》로 만들고 있는것이 남조선의 정치시정배열이다.

하기에 남조선민심이 정치권에 대해 기대할것도 지켜볼것도 없다고 비난하며 침을 뱉고있는것이다.

《《국회》안은 전쟁터처럼 뜨겁고 반대로 《국회》박민심은 싸늘해지고있다》, 《여야가 《생방송불신임》을 받는 상황》, 바로 이것이 당리당략을 위해 날마다 싸움질만 벌리는 남조선의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평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말 말 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우리 바다도 백년, 천년 우리 후손들 삶의 터전이다. 일본이 총칼 들고 조선반도를 침범한게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폐수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침공이다.

더 한심한것은 일본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정부)다. 윤석열(정부)는 친일(정부)인가 아니면 일본내각 하수인(정권)인가. 《일본의 법적적인 핵오염수 방류책동을 비호두둔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여 남조선의 한 주민이 터친 분노의 목소리》

《윤석열(정부)의 죄악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가히 망국적이다. 그 무모함도 문제이지만 검찰독재의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적 변변함에 예설되었던 전두환, 노태우시절의 기억마저 새삼 돌아온다.》(윤석열역적패당의 죄악을 까뻐한 남조선인민들의 기사중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말살한 순사는 해방이 되어 조 선총독을 끄집어내려고야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나날이 소악해지는 독재검찰의 폭력도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갈장될수 있다.》(윤석열역적패당의 검찰정치를 단죄규탄한 남조선인민들의 기사중에서)

남조선에서 얼마전 자신이 낳은 두명의 아이를 련이어 죽인 30대의 여성이 체포되었다.

녀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자마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신을 랑동기에 보관해왔으며 첫아이를 살해한 때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누구도 몰랐다고 한다.

《보검복지부》장관이라는 자는 뒤늦게야 《현재로서는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추적해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앞으로 영미의 정보를 입수해 추적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하니 하고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한들 피어날지도 못한채 비명

여난지 70여일밖에 안되는 자식을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사실도 있다.

2021년에도 8살 난 딸을 살해한 여성이 구속되었는데 그 아이도 출생등록을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런 비극적이면서도 폐륜적인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 바탕에는 사회에 범람하는 폐륜폐덕과 함께 돈문제가 깔려 있었다.

두명의 자식을 죽인 녀성은 이미 세 자식이 있는데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때에 또다시 아이를 낳게 되자 이런 살인을 감행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태어난지 한달정도밖에 안되는 자기 자식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 태

남조선사회에 인간적리성이 마비되고 폐륜폐덕이 성행하는 말 세계적공조를 더욱 만연시키고있는 장본인이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씹는다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성폭력문제, 《내 집마련》 등 녀성들이

미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니, 부동산문제는 시장논리를 따라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며 반민성, 반서민정책에 매달려왔다.

이런자들때문에 《취약계층》인 아이들, 녀성,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랑대를 받고있으며 지어 생명까지 잃는 참상이 없

지지 않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책과 무능력, 극심한 경제위기 등으로 200만여명의 주민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자살률, 출생저하률, 사고발생률 등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있으며 사회적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남조선이 불행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있다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죽이지 말라》,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남조선민심의 이 절규는 역적패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행동의 구호로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윤석열〈정권〉과 한하늘아래서 한시도 살수 없다》

—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을 퇴진을 위한 투쟁 광범히 전개 —

남조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민주로총》과 《농민회총련맹》, 《여성농민회총련맹》, 《빈민해방실천전대》 그리고 녀성, 청년, 종교단체 등 3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6월 27일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퇴진투쟁은 이미전부터 시작된 투쟁이다.

《민주로총》은 《윤석열퇴진》을 총과업요구로 내걸었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건설로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정권)은 이제 《핵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며 국민을 기만하고있다. 해외에 나가지만 하면 걱정거리를 한아름 안고오는 《정권》이라고 하면서 《취임 1년 남짓한 기간이지만 1년

간의 악행과 부추림은 이루다 말할수 없다. 7월 15일 총과업의 마지막 날 《법국민대회》를 열어 온 국민이 함께 하는 퇴진투쟁을 만들어 갈것》이라고 밝히었다.

《한국로총》, 《금속로동조합련맹》도 이에 합세하였다.

《쌀값보장》을 요구한 농민단체들은 이미전부터 《윤석열퇴진》구호를 들었다.

《농민회총련맹》의장은 《윤석열퇴진은 농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농민의 분노가 끝이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로점상들과 도시빈민들도 지난 《6.13로점상대회》를 통해 《윤석열퇴진》결의를 다지였다.

《빈민해방실천전대》 공동대표는 《전세사기와 대출,

강릉전세로 많은 국민이 빈민으로 전락하고 자영업자는 생계수단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다》고 하면서 《도시빈민이 2천만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은 떡고물만 먹고 살아라》, 《저항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행태》라고 하면서 《도시빈민도 윤석열퇴진투쟁에 앞장서겠다》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힘차게 투쟁할것》이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서울의 로점상회원들은 자기들의 로점에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투기반대》의 구호를 게시하고 방류반대서명운동을 벌리고있다.

운동본부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 저지투쟁》, 《로동란안저

지, 《민주로총》 총과업련대지지》, 《공안란안, 집회시위금지 등 민주주의파괴책동 저지》, 《골육외교중단, 반전평화투쟁》, 《천재벌, 사회공공성파괴저지》, 《민중생존권쟁취》 등 6개의 당면현안을 실천과제로 정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단체들과 련대투쟁을 이어가며 3일부터 《대통령실》앞에서 윤석

열퇴진선포가자회견을 가지며 15일에는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열어 하반기 총선거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윤석열(정권)의 지난 1년은 민중에게 커다란 고통의 시간이었다. 《빈민중,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정권)과 한하늘아래서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이 바로 남조선민심이다.

본사기자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그림 《가을밤》과 《4계절》

《이 그림들은 근대시기의 작품들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그림들은 옛날 화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특한 양상을 가진 현대화들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금희강사는 해설을 이어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선은 강직한 일제는 우리의 민족미술을 말살하기 위하여 조선봉건국가미술기관이었던

도화서를 강제해산해버리고 반동적인 부르주아미술과 일본회화법을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도화서출신의 진보적화가들은 《서화협회》라

는 애국적인 미술조직을 내오고 조선화들을 창작하면서 후비들을 키워내고 조선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다.

그 나날 화가 리도영은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으며 산수화, 화조화, 정물화, 동물화 등에서 능란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화가는 그림 《가을밤》에서 검푸른 달그림자, 마가울 바람에 흔들리는 메마른 갈대, 인적없는 별판과 날아드는 기러기떼를 통하여 일제강점초기의 침울한 감정을 직관적으로 나타냈다.



그림 《가을밤》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찬 조선 어린이들의 작품들》

국제자선작품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2023》 진행

지난 5월 로씨야의 크라스노야르스크시에서는 국제자선작품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2023》이 진행되었다. 공화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창작한 수백점의 그림들이 여기에 출품되었다.

이런 축전에 처음으로 출품된 공화국어린이들의 그림들은 그 하나하나가 관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시행정부, 미술가동맹 등 로씨야 각계 인사들속에서 찬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축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뜻밖에도 알게 되었다.》

《정말 훌륭하다. 조선어린이들의 작품들은 부드러운 면에서도 정확도가 높은것이 특징적이다. 작품에 열정과 환상으로 가득찬 어린이들의 내면세계가 잘 반영되었다. 어른들도 이런 작품을 창작하기 쉽지 않을것이다.》

《이번에 조선어린이들의 소묘작품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생활속에서 말로만 전달할수 있는 감정을 한쪽의 그림으로 보여준 그들의 능력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조선 어린이들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메 작품이 독특하면서도 주제가 명백하며 진실성이 강하다.》

뛰어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장시약수

장시약수는 강서구역 약수리에서 솟아나는 탄산-수소탄산염천이다. 강시약수에는 칼슘, 마그네슘, 수소탄산나트륨, 칼륨, 염소 등 이온화된 다양한소금과 철, 망간, 니켈, 동, 아연, 불소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이온화된 미량원소들이 인체의 흡수에 유리한 상태로 필요한만큼 들어있다.

《이온화된 미량원소들이 인체의 흡수에 유리한 상태로 필요한만큼 들어있다.》

《이온화된 미량원소들이 인체의 흡수에 유리한 상태로 필요한만큼 들어있다.》



본사기자

2022년 최우수발명가상수상자들 (1)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실장 석영범



신민주화장품공장 탐향기연구소 부소장 김흥원



자강도지방건설건설재관리국 강계건설시험소 소장 김임철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실장 석영범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연속식레드투광등》, 《자연연속식레드투광등》, 《자연연속식레드투광등》를 비롯한 국가적의가 있는 여러건의 발명을 한 재능있는 과학자로서 박사, 부교수이다.

신민주화장품공장 탐향기연구소 부소장 김흥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연속식레드투광등》, 《자연연속식레드투광등》, 《자연연속식레드투광등》를 비롯한 국가적의가 있는 여러건의 발명을 한 재능있는 과학자로서 박사, 부교수이다.

자강도지방건설건설재관리국 강계건설시험소 소장 김임철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연속식레드투광등》, 《자연연속식레드투광등》, 《자연연속식레드투광등》를 비롯한 국가적의가 있는 여러건의 발명을 한 재능있는 과학자로서 박사, 부교수이다.

그를 비롯한 조명기공연구 집단이 개발한 먼거리조명등은 많은 단위들에 도입되었으며 높은 리튬제조효과와 조형예술성을 보장하면서도 수명이 길며 전기도 훨씬 적게 쓴다 한다.

그는 새 제품개발과제책임자로 사업하면서 주요화장품 원료들인 천연보습제, 미백제, 로화방지제, 자외선방지제 등을 개발도입하였다.

그는 새 제품개발과제책임자로 사업하면서 주요화장품 원료들인 천연보습제, 미백제, 로화방지제, 자외선방지제 등을 개발도입하였다.

그는 철세워인들의 영상사진 문헌들을 더 내고 정중히 모시는데 이바지하는 조명등도 새로 개발도입하였다.

그는 철세워인들의 영상사진 문헌들을 더 내고 정중히 모시는데 이바지하는 조명등도 새로 개발도입하였다.

그는 철세워인들의 영상사진 문헌들을 더 내고 정중히 모시는데 이바지하는 조명등도 새로 개발도입하였다.

7월의 절기에는 여름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 큰 더위가 있다는 대서와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서때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데 맞게 김매기를 따

삼복철에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대표적으로 단고기장, 조계탕, 팔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삼복철에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대표적으로 단고기장, 조계탕, 팔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7월의 절기와 민속

대서를 전후 하여서는 주로 다음해에 쓸 풀거름을 장만하였다. 7월에는 한해중에 제일 무더운 삼복중에서 초복과 중복이 있다.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떨어뜨려도 약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복날에 조밥을 단고기장에 말아먹으면서 땀을 폭 내는것을 으뜸가는 몸보신으로 여겨왔다.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떨어뜨려도 약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복날에 조밥을 단고기장에 말아먹으면서 땀을 폭 내는것을 으뜸가는 몸보신으로 여겨왔다.

1950년대중엽 어느 명절날 국립민족예술극장(당시)의 민요가수 김관보와 그의 남편인 작가 조영출 그리고 서도명창 김진명은 모란봉으로 돌놀이를 떠났다.

그들은 동서남북을 둘러보다가 약속이나 한듯 가벼운 탄성을 질렀다.

그들은 동서남북을 둘러보다가 약속이나 한듯 가벼운 탄성을 질렀다.

민요 《모란봉》의 창작유래

가릴것없는 전경으로 재더미만 남았던 평야에 수많은 새집들이 일떠섰던것이. 한껏 흥이 오른 김진명의 장고소리와 김관보의 청아한 민요가락이 울려나와 모란봉의 여름정서를 한껏 들뜨였다.

그때부터 솔메는 어떻게 하면 속의 쓴맛을 없애고 맛나는 식찬으로 만들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평양 평면

메밀을 국수감으로 쓰는 평양평면은 국수오리가 지나치게 절기 않고 딱딱하며 구수한 향기와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인기가 높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메밀가루와 농마가루를 체에 친 다음 가루질량의 45% 되는 더운물(여름에는 60~65°C, 겨울에는 70~80°C)에 중조를 풀어두고 반죽기로 반죽한다.



본사기자

사화 썩떡에 깃든 사연 (2) 글 김정희, 그림 채대성

그런 속에서도 솔메는 남편의 속달에 좋은 약재를 캐다가 달여주는 일을 어느 하루도 번지지 않았다.

어느날 솔메는 새벽이슬을 맞은 10년묵은 산삼을 캐다가 풀에 푹 재워먹으면 속병에 치료라는 말을 듣고 새벽이슬을 헤치며 마을뒤에 솟은 달맞이산으로 올랐다.

《솔메는 새벽이슬을 맞은 10년묵은 산삼을 캐다가 풀에 푹 재워먹으면 속병에 치료라는 말을 듣고 새벽이슬을 헤치며 마을뒤에 솟은 달맞이산으로 올랐다.》

《하루빨리 남편이 병을 털어버려야 전장에도 나갈수 있겠는데, 아직 내 성의가 하늘을 감동시킬만큼 크지 못한 모양이야. 이젠 무슨 약을 써 봐야 할까.》

《솔메는 자나깨나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솔메는 자나깨나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솔메는 자나깨나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솔메는 자나깨나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솔메는 자나깨나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본사기자